

‘전체 수산물’ 단순 물세척 허용 환경부 “폐수처리 어려움 해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해조류·갑각류·조개류서 확대
수질오염총량제도는 내년부터 시행
위·수탁 폐수 실적 보고 면제 개선

정부는 단순 물세척만 진행되는 시설의 적용 범위를 ‘해조류·갑각류·조개류’에서 ‘전체 수산물’로 확대하고, 폐수의 위·수탁 전산시스템에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면 보고 절차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환경부는 폐수 처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수질오염총량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수질오염총량제도와 관련된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기타수질오염원 중 채취 상태

그대로 또는 삶은 제품을 구입해 단순 물세척만 하는 시설의 범위를 ‘해조류·갑각류·조개류’에서 ‘전체 수산물’로 확대한다.

이는 수산물을 물로만 세척하는 공정을 폐수 배출시설에서 제외시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등 어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폐수를 폐수처리업체나 지정폐기물 업체에 모두 위탁 처리할 경우, 위탁한 폐수의 실적을 매년 관할 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폐수의 위·수탁 전산시스템에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면 보고 절차를 면제하도록 개선했다.

‘해당 사업장’의 폐수를 모두 공공하수·폐수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폐수 배출시설’은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수의 폐수 배출시설을 보유한 단일 사업장

의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폐수배출시설 단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방류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사업장이 조업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개선명령으로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을 ‘측정기기부착사업장 중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수질오염총량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계획 검토기관 및 조사·연구반에 국립환경과학원 외에도 수질자동측정망 등 실측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환경공단’을 추가했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간 폐수 처리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농작업 기계화 모습.

/뉴스

양파·마늘 재배 전 과정 기계화 모형 공개

농진청 ‘현장 전시회’서 기술 소개
노동력, 생산비용 절감 효과 기대

양파 및 마늘의 재배 전 과정 기계화 모형이 공개됨에 따라, 농가 일손 부족의 해소뿐만 아니라 경영비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농진청은 6일 경남 함천에서 ‘양파·마늘 스마트 기계화 재배모형 현장 전시회’를 열고, 양파와 마늘 재배 전 과정 기계화 기술을 소개했다.

최근 국내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노동력이 부족하고 인건비가 올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논벼 기계화율은 99.3%로 거의 완성됐으나, 밭작물 기계화율은 2022년 기준 66.3%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특히 양파 정식과 수확 작업 기계화율은 각각 16.1%, 25.8%, 마늘 파종과 수확 작업 기계화율은 각각 14.8%, 43.8%로 다른 작업보다 낮다.

농진청은 지난해부터 주요 밭작물 중 재배 면적이 넓고 노동강도가 높은 양파·마늘 재배 기계화를 우선 추진해 ‘재배기술-농기계-저장’까지 연계한 스마트 기계화 재배 모형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이를 양파에 적용한 결과, 10아르(300평)당 노동력은 기존 38.2시간에서

5.1시간으로 87%, 생산비용은 기존 77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82% 절감할 수 있었다.

마늘에 적용했을 때 노동력은 45.7시간에서 9.4시간으로 79%, 생산비용은 122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74%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현장 전시회에서는 각각의 기계화 재배양식과 비닐피복, 파종(마늘), 정식(양파, 본밭 아주심기), 재배관리용 작업기 등 총 13개 기종을 소개하고, 양파 플러그 생산 기술을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서 시연한 승용형 자동 양파 정식기는 자동으로 모종 상자에서 모종을 뽑고 이송해서 정식하는 작업기다. 한 명의 작업자가 타고 작업하며 4조식으로 두둑을 왕복하면 한 두둑에 8줄의 양파를 정식할 수 있다.

조파식 마늘 파종기는 한번에 8줄씩 마늘 종자를 누어서 줄뿌림하는 작업기다. 파종과 제초제 살포, 비닐 피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트랙터 부착형과 자가 동력으로 파종하는 보행형이 있다. 농진청은 앞으로도 양파·마늘 주산지에서 농업인에게 기계화 기술을 직접 소개하는 현장 연·전시회를 열어 양파·마늘 스마트 기계화 재배 모형을 전국에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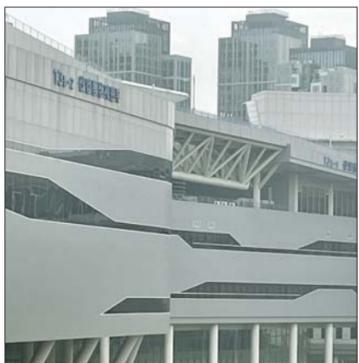
산업부, 베트남 반덤핑조사 ‘최소규제’ 요청

무역구제협력회의·FTA 무역구제위원회
컬러도금강판, 철강와이어 등 조사

정부가 베트남 정부의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반덤핑조사와 관련, 최소 규제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6일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서울에서 ‘제8차 한-베트남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제9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위원회’를 통합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역구제(Trade Remedy)란 덤핑 등 불공정무역행위 또는 공정무역이더라도 국내 산업에 피해 발생 또는 그 우려가 있을 시, 자국 산업 보호와 불공정 교역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하는 수입규제 조치를 말한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양국 무역구제기관은 지난 2015년 12월 ‘한·베 FTA’ 발효, 2018년 3월 ‘한·베 무역구제 기관 간 협력확대 MOU’를 체결, 상호 수입규제 현안을 신속 협의하고, 무역구제 제도와 조사기법 등을 논의하는 협력 채널을 구성해 매년 긴밀한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상호 규제 중 이거나 조사 중인 건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등 무역구제 등 조사당국으로서의 관심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10월말 기준 양측은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제품 각 3건 조치 중, 1건을 조사 중으로 베트남은 한국산 컬러도금강판, 철강와이어, 아연도금강판 등 철강제품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베트남이 지난 6월 조사 개시한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반덤핑조사 관련 “동 제품의 베트남 철강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베트남측에 이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한 조사 진행과 최소 규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노사발전재단 라오스 노동법 개정 지원

노사발전재단이 오는 8일까지 라오스 현지에서 노동법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함께 정책 자문 활동을 수행한다고 6일 밝혔다.

노사발전재단은 2022년부터 무상원조(ODA) 시행계획에 따라 라오스 노동법 개정을 지원해 왔다. 이번 일정은 지난 6월 진행된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의 한국 초청 프로그램에 이어 진행되며, 라오스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정책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법 개정에 발맞춰 라오스 근로감독체계 개선 및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라오스 노사정의 역할에 대한 논의 등 다양한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김대환 기자

폴리텍,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열어

사회문제·신기술 결합 아이템 선별

한국폴리텍대학은 6일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반도체융합캠퍼스 대강당에서 ‘제8회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폴리텍대학의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는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도전 정신을 키우고, 예비 창업가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마련된 행사다. 지난 2017년 시작된 이 대회에는 지금까지 801개 팀, 3865명이 참여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팀들은 페달 오인 조작, 전기차 화재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시의성 있는 주제와 디지털 신기술을 결합한 다양한 분야의 창업 아이템을 선보였다.

대상을 수상할 3개 팀에는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과 함께 각 1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금상 4개 팀에는 폴리텍대학 이사장상과 각 100만원의 상금이 시상된다. 총상금은 약 1760만원이다.

아울러 대회에서는 벤처 창업 분야 전문가 염지홍 대표가 ‘문제 발견 능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그는 일상 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음 관찰 태도’의 중요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경험을 참가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가 혁신적인 창업가로 계속 도전해 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고용부, 대·중소기업 안전관리 협력 고도화

화학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LG화학 등 기업, 종사자 약 180명 참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6일 충청남도 서산 LG화학 대산공장 대강당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2024 화학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생협력포럼은 지난 6월 반도체 업종을 시작으로 자동차, 통신, 철강, 화학 등 8개 업종을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하며 개최됐다. 대기업과 협력사 760여 개사, 자치단체, 학계, 관련 협회 종사자 등 약 1600명이 참여했다. 여덟 차례의 포럼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이 중소 협력사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과 대기업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라는 윈-윈 전략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마지막 포럼인 이번 화학포럼에는 LG화학, HD현대오일뱅크 등 화학 관련 대기업과 협력사 종사자, 학계 및 관련 협·단체 전문가 등 약 180명이 참여했다. 화학업종은 대규모 설비와 다양한 공정으로 인해 설계, 운전, 보수 및 유지에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위험한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고 있어 한번의 화재, 폭발, 누출로도 큰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항상 잠재하고 있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조용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협력사 평가 위험성평가와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안전관리를 표준화한 미국의 다우케미칼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천영우 인하대 교수는 모든 작업과정에 대해 협력사에 대한 안전관리 상생협력 수준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2부 패널토론에서는 업종별 협단체가 각 업종에 적합한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장에서 경험적으로 쌓인 안전관리 지식과 정보를 문서화해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업종은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장 내의 근로자는 물론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산업재해 예방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동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해나가는 상생협력 모델이 화학업종에도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